

뉴에이지 그림책의 기독교 세계관 조명*

An Analytic Study of New Age Picturebook within Christian Worldview

이수형 (Soo Hyoung Lee)**

현은자 (Eun Ja Hyun)***

ABSTRACT

As a crossover phenomenon in picturebooks, Gnosticism, which is horror literature for adults, began to emerge. The current study analyzed the worldview by applying Vanhoozer's (2009) Theological cultural Hermeneutics to Hui-na Baek's picturebook "Strange Mom," and illuminated it as a Christian worldview.

First, the world of the text itself,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family issues continued through book cover. The main character was an antagonist that subverted the protagonist, and manifested the notion of nihilism highlighting social problems by demonstrating that the wicked help the righteous. Second, the world behind the text, Hui-na Baek lost the copyright lawsuit, and pessimism was reflected in her work. She studied at CalArts, which followed a postmodernist trend, and she has created several Gnostic picture books. Third, the world ahead of the text, adults were comforted and children found the book either fun or terrifying, which shows that the readers of each group expressed opposite reactions. Hui-na Baek won the ALMA and, raised her profile, while ALMA's award-winning writers reflected the postmodern paradigm.

Finally, this literature contains a new-age worldview that advocates Gnosticism to replace the nihilistic world. It emphasizes the absolute necessity of analyzing the worldview of picture books as a means to recover Christianity.

It also demonstrates that children's literature can contain the Christian worldview, such

* 2022년 5월 12일 접수, 6월 7일 최종수정, 6월 8일 게재확정

**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아동청소년학과 박사수료,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melodyofsea@naver.com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hyunej6029@gmail.com

as in Tolkien's fantasy theory. A good picturebook cultivates one's mind to find grace, the gift of God. Although we are currently in the era of postmodernism to which culture the picturebook adheres, one should examine it through a worldview analysis, and this emphasizes the need for individuals to be a critic, a man of letters, and a believer that repents and recovers in the light of the Christian worldview of creation, depravity, and redemption.

Key words: Christian worldview, New Age picturebook, cultural hermeneutics.

I. 서론

그림책이란 글과 그림이 이야기를 엮어가는 형태로 어린이 문학에 해당한다. 어린이에게 적합한 이유는 그림책의 그림이 이해를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 글만 있는 책을 읽기 이전의 연령인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어린이가 사물을 이해하고 글을 깨우쳐가며 사회 지식을 익히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어린이 문학에 대한 이론적 토대는 성인과 어린이의 구별이 없다. 비평가들의 경계를 초월하려는 크로스오버(crossover) 경향은 어린이만의 고유한 문학성을 깨고, 순수함을 보전하기 어렵게 한다. 판타지 그림책에도 이러한 크로스오버 현상이 나타나며, 그림책의 독자 차원에서 성인과 아동의 경계가 분명했던 과거와 달리 독자 연령의 경계를 무너트리고 있다(Beckett, 2012; Judith, 1997; Meibauer, 2017). 크로스오버 현상으로 그림책은 여러 가지 금기를 깨고 있다. 한 예로 성인만의 영역으로 취급된 ‘공포 문학(Horror Fiction)’이 그림책에 등장하며 크로스오버 현상을 보인 것이다.

『A Children’s Book of Demons』(Aaron Leighton, 2019)는 아이들이 악마를 부르는 주술을 소개하는 그림책으로 Amazon에서 팔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술을 하는 무당의 자문을 얻어 만든 그림책『부적』과 부적에서 튀어나온 할머니를 소재로 한 같은 작가의 그림책 『깊은 산골 작은 집』(2011)이 출판되었다. 출판사는 이 책을 우리나라 전통문화라고 소개한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내용은 재미로 취급되고, 미화되어 전달된다. 이것은 영지주의 세계관이 어린이 문학인 그림책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평이나 관심은 매우 적은 반면, 비슷한 부류의 그림책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아이들의 신앙이 하나님ی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현실에 대하여 신학적 비평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날 우상은 여러 형태로 삶에 스며들어 나타나기 때문이다(Wilkens & Sanford, 안종희 역, 2014).

영지주의는 영어로 그노시스(Gnosis)이며, ‘인식’, ‘지식’이라고 해석된다. 정일권(2020)은 그노시스의 근원을 그리스어 피시스(Physis, 자연)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자연의 선함을 부정하고 그 악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영지주의 권위자인 Jonas는 영지주의가 본질적으로 신화적이며, 이후 신비철학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본질적으로 반유대교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Jonas는 영지주의는 창조세계의 선함을 말하는 유대교의 유일신론적 입장에 대한 반항이며 복수라고 설명을 덧붙인다(Jonas, 1993; 정일권, 2020에서 재인용).

그림책, 문학과 미디어는 문화로서 인간의 정신을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Vanhoozer(2009)도 인간이 문화 텍스트에 장기간 노출되어 다양한 유형의 효과와 부작용이 발생함을 강조했다. 크로스오버 현상에 대해 아이들과 어른이 같이 보는 그림책으로 여기는 단편적인 시선보다는 다층

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피상적 이해를 넘어서 현실에서 분별해야 할 것에 도움을 주게 된다. Vanhoozer(2009)는 특히 기독교인은 문화를 배척하거나 포용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문화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지만, 내면에 담겨진 통합된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에는 소홀하다. 예술 비평가 Brand & Chaplin(2004)은 올바르게 통합된 가치 평가란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때 가능하며 예술의 형식, 내용, 세계관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Wolterstorff(2016)도 예술을, 예술가가 의도 또는 의도하지 않아도 세계에 대한 가설이 드러나는 세계 투영(world-projection)행위로 보았기에 세계관이 담겼다고 했다.

예술을 포함한 광고, 영화, 문학 등의 문화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세계관을 파악하기 위해 Vanhoozer(2009)는 신학적 문화해석 방법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예술과 문학으로 특징되는 그림책도 이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은 Vanhoozer(2009)가 『문화신학』에서 제시한 방법론으로 문화 텍스트의 뒤의 세계, 자체의 세계, 앞의 세계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성경에 비추어 그 세계관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텍스트 뒤의 세계’는 그림책이 생성된 배경으로, 저자와 저자에게 영향을 미친 교육 및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텍스트 자체의 세계’는 그림책의 문학 요소 및 표지 등을 분석하는 텍스트 내부를 말한다. ‘텍스트 앞의 세계’는 그림책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독자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이다. 세 가지 층위를 총합하여 그림책의 세계관을 도출한 이후 세계관을 신학적으로 조명해야 한다.

텍스트가 제시하는 세계에 대한 신학적 조명의 필요성에 대해 Vanhoozer(2009)는 문화 텍스트가 주는 은유와 가설에 대해 설명하고 나아가 잘못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anhoozer는 세계 가설로 이루어진 문학은 사회의 은유로 세계 전체를 이해하도록 권장함에 주의를 요구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견해와 습관을 형성해 주기 때문이다. 결국 텍스트의 상상력이 실제로 독자의 신념이 되고, 텍스트가 보여주는 세계에 대한 이념, 즉 ‘물질주의’나 ‘쾌락주의’ 같은 것이 우상이 되고 있음을 Vanhoozer는 경고한다. 이러한 전제를 통해 텍스트에 대한 신학적 비평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의 그림책 비평에서 세계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Vanhoozer의 신학적 문화해석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로 현은자와 김주아(2019)의 <빛나는 아이> 해석이 있다. 그림책의 주요 내용은 1980년대 뉴욕에서 활동하던 그래피티 예술가인 Jean Michel Basquiat의 생애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그림책이 반영하는 세계관은 표현적 개인주의로서 예술가에 대한 단편적 시선으로 전기문을 만들어 이상화함을 기독교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현은자 외(2018)는 Jon Klassen의 <모자 삼부작>에 대한 형이상학, 인식론과 윤리학 측면에 대한 다층적 분석을 시도했다. 그림책에 나타난 허무주의 세계관을 논증하기 위함이었다. 현은자와 이지운(2022)은 『고민 해결사 펭귄 선생님』의 주

제인 ‘상당’에 관한 세계관을 깊이 있게 평론하였다. 그의 평론은 크로스오버 현상을 지적하며 그림책이 지닌 허무주의 세계관에 대해 논의하였다. 성인이 성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화두로 삼았고, 어린이는 사라지지 않는 공동독자임을 상기시켰다. 김현경(2021)은 『돼지책』에 나타난 세계관에는 소비주의와 포스트모던 부족주의¹⁾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연구는 기독교인들이 신앙 안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혜안(慧眼)이 생겨나게 한다.

그림책 세계관 분석에서 자주 언급되는 허무주의는 라틴어 ‘무(無)’를 의미하는 니힐(nihil)에서 왔기에 니힐니즘(nihilism)이라고도 한다. 이는 절대적 진리나 도덕, 가치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고 보는 입장으로 그러한 생활태도를 총칭한다(시사상식사전, 2022). Nietzsche는 ‘신은 죽었다’라는 현대의 정신 상황을 허무주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철학사유로 규명하였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실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교회용어사전, 2022). 허무주의를 충족하기 위해 문학은 하나님의 실재를 대신할 이방신을 가져와 영지주의를 보인다(정일권, 2020). 영지주의는 뉴에이지(New age)의 특성 중 하나이다.

뉴에이지(New age)란, 새로운 세대라는 개념으로 무신론과 물질주의가 만연한 20세기 말에, 기존의 사회, 문화, 종교에서 더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 공허를 느낀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으로, 신문화 운동이다(두산백과, 2022). 두산백과 설명에 따르면, 뉴에이지 사상은 첫째, 점성학으로는 별자리를 믿으며, 동양의 사상인 도교,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과 심리학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의 환생과 카르마를 믿으며 명상에 심취한다. 둘째, 기독교 신앙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영지주의(gnosis)로, 강신술, 영매 사상 및 이교적 종교 예식(음식, 제사)도 포함한다. 셋째, 인간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치유하고 해방되는 우주적 인본주의를 믿는다. 뉴에이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음악, 문학, 영화, 심리치료, 스트레스 치료, 명상 등 의식에 영향을 주는 문화로서 넓게 확산되는 측면에 있다. 종합한다면, 그림책이 동양 신앙의 영적 존재를 반영하고, 종교적 성향의 무속인 또는 이교적 종교 예식인 음식과 관련되거나, 심리나 스트레스 치료와 관련된다면 뉴에이지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문학에서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팽배하지만, Tolkien과 같은 문학가는 자신의 작품 안에 기독교 세계관을 담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 판타지 문학 속에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 찾았으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바른 해석을 자신의 문학에 담았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를 ‘선한 결말로 기쁨을 주는 이야기’로 악한 가운데 선함으로 승리하는 문학적 전개를 강조했다. 이는 판타지 문학으로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을 표현할

1) 포스트모던 부족주의란 마치 부족사회의 구조처럼 나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결속하기 위해 공통의 언어나 의미, 경험, 사상을 가진 작은 집단 내에서 강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현경, 2021).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은자(2017)는 그림책 해석을 영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은혜의 사전적, 신학적 개념을 통해 세계관 비평을 하고 은혜 이야기가 전하는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와 같이 그림책은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역할을 돕고, 신념을 형성하게 하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의 평론 대상은 크로스오버 특징을 지닌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이상한 엄마』이다. 이 그림책은 백희나의 이상한 시리즈의 첫 번째로, 매우 독특한 시도를 보여주었다. 선녀를 현대의 신화로 재해석하였으나, 그 공포스러운 외모에 대해 대체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명백한 문화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백희나는 2020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를 수상하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백희나는 북라이브 잡지(2020)에서 어린이만이 아닌 어른도 위로하는 그림책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국내 학술 연구자들은 그림책 작가들 중에 백희나에 대하여 비교적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사회문화 연구로 임정진(2019)의 『장수탕 선녀님』그림책 속 공중목욕탕 표현방식의 문화연구가 있다. 미디어 매체의 확장으로 최혜립(2012)의 『구름빵』 2차 콘텐츠 연구가 있다.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김새봄(2012)의 미술교육, 김희주(2014)의 음악 교육프로그램 연구와 양새롬(2021)의 이야기 구성 능력의 신장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작가가 강조했던 크로스 오버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백희나 그림책의 가족 의미를 탐색한 연구(이영경·김은주, 2019)와 백희나 판타지 그림책의 환상성 연구(남지현, 2016)는 판타지 속 인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뒤로하고, 조부모라는 명명으로 영지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백희나 그림책에서 나타나는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 영지주의 성격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백희나 작품의 세계관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문화적 방식으로 무엇을 보여 주는가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신학적 문화 해석학으로 연구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선행 연구에서 환상에 관한 담론은 성인문학의 정의들을 가져왔기에 어린이 문학으로의 담론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처럼 백희나 그림책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총체적 시각의 세계관 분석을 통해 어린이 문학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회복하는 시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백희나 그림책 『이상한 엄마』에 대하여 Vanhoozer(2009)의 신학적 문화해석 방법론으로 그림책을 분석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이상한 엄마』 그림책의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은 어떠한가?

- 1-1. 텍스트 자체 세계는 어떠한가?
- 1-2. 텍스트 뒤의 세계는 어떠한가?
- 1-3. 텍스트 앞의 세계는 어떠한가?
- 1-4.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은 어떠한가?

II. 텍스트 자체의 세계

1. 표지와 면지 (Paratext)

그림책은 표지와 면지를 가리켜 파라텍스트(Paratext)라 불린다. 표지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림책에서 중요하다는 이론(Serafini, 2012; 한아름, 2016)에 따라 파라텍스트만 연구되기도 한다. 백희나의 그림책 앞표지는 주로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온다. 특히, 『장수탕 선녀님』, 『이상한 엄마』, 『이상한 손님』의 표지는 유사한 형식이다. 그림책의 내용을 참고하면, 각각의 표지인물 전부가 현실 세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림책에 등장하는 어린이에게만 보이는 가상의 인물로서 허구 세계인 하늘나라에 사는 인물이다. 표지인물의 중요성에 따라 내용을 이끌어가는 어린이가 주인공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으며, 하늘나라에 사는 모호한 존재가 중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상한 엄마』 앞표지에는 어두운 배경과 대조적으로 하얀 구름으로 얼굴을 가린 인물이 있다. 한복과 유사한 옷에 옛날 머리장식, 목걸이를 한 인물은 집 안에서 나갈 때 보이는 현관문 앞에 서 있다. 두 손을 마주하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앞치마를 한 모습이 일하는 중인 듯하다. 머리에는 옛날 사람들이 할 법한 장신구를 하고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이 정체를 알기 어렵다. 『장수탕 선녀님』은 표지인물이 선녀임을 제목으로 알 수 있으나, 『이상한 엄마』의 인물은 엄마로 보기엔 현실적이지 않다. 다만 『장수탕 선녀님』의 선녀와 같은 올림머리를 하고 있어 『이상한 엄마』의 인물도 선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앞표지에는 손글씨로 제목이 적혀있고, 작가의 이름만 작게 있을 뿐이다. 집안에 낮게 깔린 구름들이 몽환적인 인상을 풍긴다. 배경은 현실의 우리 집 현관인데,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존재이다.

뒤표지에는 작은 프레임 안에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의 베란다가 내려다보인다. 빨래들이 널려있

는 배란다는 내리는 비에 젖을 것 같은 상황을 보여주어 엄마의 부재를 표현했다. 이야기가 끝나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면지는 앞과 뒤가 다르다. 작가는 면지를 통해 그림책 제작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다는 한아름(2016), 김정준과 신원애(2016)의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앞, 뒤 면지가 다른 이유는 내부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이나 장소를 보여주어 플롯의 변화를 나타내고, 그림책에 등장하는 주요색을 사용함으로 이야기의 원인과 결과를 색채대비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인물의 감정 변화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이상한 엄마』의 앞 면지에는 달같이 쌓여있다. 달같 뒤로 구름이 지나고 있어 호기심이 증폭된다. 뒤 면지에는 어두운 하늘, 구름 속으로 선녀의 뒷모습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야기의 끝을 알리듯 그림책 안에서 나가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앞과 뒤 면지에서 하나의 문제 해결 서사가 끝났음을 보여주지만, 앞과 뒤표지에는 가정의 문제가 지속됨을 시사하고 있다.

2. 문학구조

문학구조는 플롯, 등장인물, 배경, 주제를 말한다. 이는 Frye(2000)에 의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플롯(plot)은 Mythos로 구성 원리를 말하며, 등장인물과 그 배경은 Ethos로 이 둘의 작용을 말하고, 주제는 Dianoia로 관념 또는 시적 사상을 말한다.

『이상한 엄마』의 등장인물은 세 사람이다. 작가는 아픈 아이 호호와 직장을 다니는 엄마, 하늘에서 온 이상한 엄마인 선녀로 인물을 설정했다. 일반적으로 등장인물은 프로타고니스트(protagonist)와 안타고니스트(antagonist)로 나눈다. 중심인물인 프로타고니스트의 어원은 첫 번째(proto)와 갈등(agon)에 인칭 어미(ist)로 이루어졌다(엄다혜, 2021). 즉, 갈등을 주도하는 주요인물로서 강력한 의지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주인공이다. 어린이 문학에서는 주로 어린이가 사회를 배우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를 극복하는 선한 인물들을 프로타고니스트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악행의 기본적인 구조를 띠는 안타고니스트의 어원을 보면 반대(anti)와 투쟁(agon)에 인칭 어미(ist)로 구성되어 있다(엄다혜, 2021). 안타고니스트는 프로타고니스트를 위협하며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이나, 프로타고니스트의 정체성 확립과 플롯의 전개에 서스펜스(suspense)를 증가하는 인물로서 존재 가치가 있다. 어린이 문학에서 주인공에게 역경을 안겨주는 초현실적 존재로 두려운 외모와 마법을 사용한다. 『이상한 엄마』의 선녀와 같은 인물이 전형적인 안타고니스트

였다.

하지만 포스트모던의 해체이론으로 인물의 선악은 혼용되었고, 영화에서는 이미 사회적 배경에 탓을 돌리는 안타고니스트의 주인공 점령은 활발히 제작되었다(임대희, 2020; 류훈, 2019). 영화 속 조커와 한니발의 악한 인물이 프로타고니스트 자리로 올라선 것은 전복(subversion)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전복이 가능한 것은 어두운 사회문제를 배경으로 한다. 결국 우리 사회는 문제가 많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그림책 『이상한 엄마』에서 선녀는 영화 속 조커와 같이 하얀 얼굴에 빨간 입술을 그리고 있다. 복장과 장신구는 신내림을 받았다는 무당이 떠오른다. 선녀의 근원을 찾아보면 무당과 분장의 연관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선녀는 도교사상에서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이 발간한 『월간문화재사랑』(2008)에서, “도교는 인간이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 도를 터득해 하늘에 오르는 신선이 되며, 관련한 설화에는 선녀, 옥황상제, 신령 등이 존재한다”라고 소개한다. 시간이 지나 도교는 불교와 결합되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백성들 사이에서는 민간신앙과 섞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김한중 외, 2015). 특히 『한국민속대백과사전』(2016)을 보면 도교의 옥황상제는 “우리나라 무당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신격이다. 전통적으로 하늘에서는 하늘을 주재하는 신격으로 인식하여 하느님과 동일시된다.”라고 설명한다.

이상한 선녀의 화장법은 8세기를 전후하여 중국 당대의 불교문화와 외래 종교 유입으로 시작된 문화이다. 중국의 화장문화를 연구한 임재영(1994: 467-469)은 “당시의 얼굴에 하얗게 분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미의 개념”이었다고 한다. 또한 “붉은색은 귀신을 쫓는 관점으로, 귀신의 통로인 입에 적색 칠로 잡귀의 근점을 막았다”라고 보았다. 독특한 화장법은 선녀가 무속신앙 속 인물로 재해석될 수 있으며, 왜곡된 선녀이다. 어린이 문학인 그림책에서 이례적인 인물로서 안타고니스트의 전형이다.

안타고니스트의 전복은 지면 분할에서도 나타난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펼침면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여느 그림책 주인공 소년들과 다르게, 호호는 총 15 화면에서 7 화면만 등장하며 대체로 작고 무기력하다. 대사도 거의 없다. 호호의 엄마는 시작과 말미에 나오며 6 화면만 등장한다. 또 다른 주인공으로 표지에 나타나는 선녀가 있다. 총 10 화면에 등장하여 이례적으로 이상한 엄마에 해당하는 선녀가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중심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선녀는 주인공인 프로타고니스트가 되었다.

주제는 Frye(임철규 역, 2000: 132)가 언급하듯 “소설이나 극과 같은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작품 내부의 이야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독자가 작가로부터 얻게 되는 Dianoa는 관념 또는 시적 상상이다. 번역어로 가장 적합한 말은 ‘주제’라는 말일 것”으로 중요한 무게를 가지게 된다. 백희나 작

가의 그림책은 어린이가 외롭고, 두려울 때에 영적 존재가 나타나 해소함을 표현한다. 인물 해석에서 보듯 사회문제가 가장 큰 주제이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회에서 이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이 주는 행운일 뿐이다.

플롯을 살펴보면 처음 시작에서 아이가 혼자 아픔, 무서움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다. 직장에서 일하는 호호의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호호가 아파서 조퇴를 했다는 것이다. 엄마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다. 엄마는 몇 번의 시도 끝에 답변을 하는 목소리가 자신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호호를 부탁한다. 먹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내리는 하늘과 어두운 아파트 배경을 향해 밝은 분홍빛의 날개옷을 입은 선녀가 구름을 타고 가는 뒷모습의 그림 텍스트가 있다. 글 텍스트는 “나더러 엄마라니..., 잘못 걸려온 전화 같은데, 아이가 아프다니 하는 수 없지. 좀 이상하지만 엄마가 되어 주는 수밖에,”라는 혼잣말과 ‘이상한 엄마는 호호네 집을 찾아 내려왔습니다.’라고 설명이 있다. 선녀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얼굴을 시원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뒷모습이거나, 어둠에 감추어져 실루엣만 보인다. 호호가 선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는 겁이 났다. 온통 하얀 얼굴 화장에 빨간 입술연지와 볼연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픈 호호를 위해 노란 연기를 피워내는 달걀국을 만들어주고, 하얀 구름 연기를 피워 침대를 만들어 주기도 했기에 호호는 점점 마음을 놓는다. 마법 같은 일련의 일들을 통해 의지할 곳 없던 아픈 호호는 위안을 얻고 잠이 든다. 엄마가 퇴근하여 돌아온 늦은 밤, 선녀가 만든 구름 침대에서 잠든 호호를 보고 안심하며 옆에서 잠이 든다. 엄마와 호호가 깨어난 후, 주방에는 커다란 달걀부침을 올린 볶음밥이 가득히 있었다. 엄마 또한 식사를 통해 위안을 얻는다. 『이상한 엄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호호의 진짜 엄마는 집안에 걸려 있는 선녀의 날개옷을 바라보며 서 있다. 아주 작은 프레임 안에 있는 엄마의 표정은 놀람, 희한함, 의문 등을 보여준다.

하나의 서사 속에서 선녀는 선행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녀는 현실에 없기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족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부모 가족일 경우, 엄마나 아버지는 반드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고, 자녀는 돌봄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결국, 작품에서 보여주는 분위기는 일종의 허무주의를 전달한다. Sire(김현수 역, 2017: 123)는 “관계의 절망, 걱정, 권태 등의 감정을 느껴보는 자만이 진지한 세계관을 이루는 허무주의를 알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20세기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허무주의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술과 문화에 깃든 허무주의 세계관은 삶의 무(無) 가치를 암시한다(현은자 외, 2018).

문학 구조의 마지막인 ‘배경(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환상의 구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린이 문학이 가진 환상의 정의와 다른 크로스오버 그림책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Stott(1977)는 현대 어린이 문학의 환상에 대한 깊은 구조에 관하여 첫째, 환상은 현실인 1차 세계에서 시작하여, 둘째, 잠재적이고 물리적으로 위협적인 세계에서 어린이들의 모험, 소원의 성취, 창조적인 부분으로서의 성인 생활에 취약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상징된 상황을 겪는 '상상의 2차 세계'를 경험하며, 셋째. 마침내 어린이들은 만족감을 가지고 안전한 집(1차 세계)으로 돌아온다. 환상의 필수 요건은, 환상이 아동에게 안정된 정서를 주어야 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도움을 주며,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해결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런데 백희나 그림책의 환상 구조는 이러한 안정감을 벗어난다. 환상이 일어나는 장소가 동네, 자주 가는 목욕탕, 나의 집 안으로 내가 일상을 보내는 현실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어린이 문학의 구조와는 달리, 성인들의 공포 문학(Horror Fiction)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공포 문학의 오컬티즘(occultism)²⁾은 옛이야기 속 마녀, 귀신, 선녀나 도깨비가 현실에 불안 요소로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결론적으로, 『이상한 엄마』의 인물은 프로타гон리스트에 대한 안타고니스트의 전복으로, 공포 문학의 오컬티즘 속 전형적인 안타고니스트인 선녀가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 주제는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나 손길, 기관 등 아무도 없는 사회문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플롯은 허무주의를 보여주고 있으며, 배경은 어린이 문학의 전형인 현실의 1차 세계와 환상의 2차 세계의 구분이 없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성인문학 형태로 크로스오버 현상이 그림책에 나타난 결과이며,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특징이다.

III. 텍스트 뒤의 세계

1. 포스트모던 패러다임과 작가의 사회적, 교육적 배경

텍스트 뒤의 세계는 그림책 작가의 가치관 및 사고와 행동 방식으로 작가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전하는 세계를 말하며, 작품 및 작가의 시대적 배경 등 텍스트에 영향을 끼친 세계를 말한다.

작가는 포스트모더니즘이 팽배한 시대에 교육을 받았으며, 창작에 대한 소신을 가지게 된다. 백희나 작가의 초기 연구에는 『구름빵』의 연이은 성공에 따라 가족공동체를 중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백희나는 “『구름빵』에서 회사에 가는 아빠와 빵 굽는 엄마, 남매라는 딱 떨어지는 가족공동체가 마음에 걸렸고, 이후 작품에서 가족 형태의 범위를 다양하게 넓혔다

2) 오컬티즘(occultism)은 '감추어진 것', '비밀' 등을 뜻하는 라틴어 'occultus'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는 보통 경험이나 사고로 파악할 수 없는 신비적, 초자연적 현상을 믿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시사상식사전, 2022).

고 한다. 한때 ‘결손’이라고 불렸던 형태의 가정, 일상이 험난한 워킹 맘 가정, 혈연이 확실치 않은 가정, 인간과 동물이 결합한 가정에 천적 관계인 두 종의 동물이 이루는 가정까지 담아낸다.”(시사 IN, 2020: 657호)라고 한다. 백희나는 대학내일 인터넷 잡지(2016)에 스스로 염세주의자라고 소개하며, ‘세상의 선은 상대적인 것이라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도덕적 상대주의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도덕의 절대 진리는 없으며, 누구도 옳다는 식의 도덕적 상대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해당한다. 작가 역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사고하고 있다.

백희나는 신인 작가 시절에 출판사에 저작권을 전부 양도하는 매절 계약을 맺고서 『구름빵』그림책을 출판했다. 이 그림책은 하나의 콘텐츠 역할을 하며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으며,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2014년 알려진 수익은 대략 4천억이며, 2차 콘텐츠 생산의 모든 수익금도 출판사에게 귀속되었다(NEWS1. 2014). 작가는 1,850만원의 수익금을 받았다. 이 논란은 출판계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지목되고 있다. 작가는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다(한겨레. 2020). 백희나 작가는 이러한 오랜 과정을 거치며, 힘든 시기를 보냈고 ‘그런 경험이 치명적인 트라우마가 되었다’(한겨레. 2020)고 토로했다. 작가의 사회적 배경에 따른 절망감은 작가에게 도덕적 상대주의와 허무주의,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는 등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백희나 작가는 입체적인 화면 처리를 하는 작가이다. 그녀에게 영향을 미친 애니메이션 교육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예술대학(CalArts;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에서 받았다. 대학의 홈페이지(2021)에 따르면, CalArts는 1961년 Walt Disney와 Roy O. Disney, Nelbert Chouinard에 의해 설립되었다. 교육은 시각, 공연, 미디어 및 문학 분야에서 70개 이상의 종합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새로운 유형의 포스트모더니즘을 지향하는 아티스트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음을 자랑한다. CalArts 대학은 홈페이지(2021)에 “역사적으로 Disney의 유토피아적 개념을 가진 열렬한 반문화적(counter-cultural) 버전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며, “CalArts 연구소는 예술의 독창성을 갖춘 온상지가 되었다”라고 홍보한다. CalArts는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의 특징을 가진 교육기관임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연구는 그 수가 상당히 많다. 김지홍(2004)은 디즈니가 만든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전통 가족 구성원을 거의 다루지 않으며 대부분의 작품들이 외동이거나 고아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민정과 이해원(2019)은 최근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여성 영웅 캐릭터가 전통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항하는 중심인물로 표현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노승관(2018)은 고전적 디즈니 애니메이션 원리의 현대적 재구성을 연구하여 그 성공사례를 분석하였지만, 상업적 캐릭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라는 한계를 지적한다. 조윤경(2016)은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와 디즈

니의 판타지가 합작한 애니메이션 협업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대체로 성공사례를 다루거나, 인물, 가족, 애니메이션 기술 등이 전통과 다른 전복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시대사조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그림책에 미친 영향들도 발견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성인과 아동의 경계를 무너트리는 크로스오버(crossover) 현상이다. Judith(1997)는 그림책의 텍스트와 이미지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큰 요소이며 ‘그림책은 모든 연령을 위한 장르’라고 규정하였고, Beckett(2012)는 어른에게 매력적인 그림책의 요소를 실험적인 관습, 코드, 규범에서 찾는다. Meibauer(2017) 역시 21세기에 나타난 그림책의 특징으로 모든 연령층의 관객을 다루는 다양성을 들고 있다. 그림책은 그동안 금기시되어 오던 주제인 전쟁, 죽음, 정신질환, 아동학대를 다루며 우울한 분위기와 열린 결말로 등장인물의 불안한 심리 세계를 그린다.

백희나 작가의 초기작인 『구름빵』, 『달샤벳』 이후의 그림책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 드러난다. 할머니의 영혼을 불러오는가 하면, 들리지 않는 사물이나 사람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 『알사탕』 그림책이 있다. 장르로 보면 판타지(Fantasy)³⁾로 볼 수 있지만, 영지주의로 해석해도 들어맞는다. 가족의 형태 변화를 담으려 노력한다는 점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이상한 손님』에서 달걀귀신을 비롯한 도깨비들이 외로운 남매와 놀아주고 떠난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남매 둘은 멍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이 나간 듯 초현실적 인물을 그리워한다. 이러한 허무주의와 크로스오버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다. 판타지 장르를 가장한 호러 장르로서 성인 문학과 어린이 문학의 경계를 깨고 있다.

가족에 대한 포스트모던 풍조를 그림책 『나는 개다』에서도 볼 수 있다. 강아지는 ‘돌봐야 할 가족’으로 사람인 할머니와 다섯 살 동동이를 자신이 보살핀다고 말한다. 강아지 입장에서 동동이는 다섯 살인데도 나약하기 짝이 없다고 표현한다. 인간 동동이와 강아지 구슬이가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하고 지켜주는 마음을 절절히 담고 있다. 『이상한 엄마』 그림책은 오컬트 인물을 구원자로 그리고 있다.

Mouw(2021)는 사회문제가 외로움과 불안을 증폭시켜 사람들이 오컬티즘에 빠짐을 지적한다. 공동체 중심이던 기독교 문명사회에서 가족을 중시했던 시절에는 웃어른에게 지혜를 구하고, 형제와 자매가 의지하며 살았다. 그러나 현대의 급속한 사회 변화는 박탈감, 소외감, 절망감, 그리고 영적인 의존의 문제까지 나타난다. 문화는 이러한 현상을 포스트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이라는 변명 아래 가족의 형태를 약하게 만든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예배 참석과 기도로 자신을 돌보던 영성의

3) 판타지(Fantasy)는 가상의 세계에서 일이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상을 깨며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을 담은 문학 작품이다(네이버국어사전, 2022).

회복이 아닌, 무속신앙과 환각, 자극과 재미로 면피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에서 ‘탈기독교화’의 진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림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C. S. Lewis(Pike, 송은정 역, 2017)는 우려를 표명하며, 서양의 역사를 기독교 이전 시대, 기독교 시대, 후기 기독교 시대 세 단계로 구분하면서 ‘기독교적 문명사회’가 서서히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후기 기독교 시대로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사회,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분별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IV. 텍스트 앞의 세계

1. 독자 반응

본 연구는 백희나 작품에 대한 독자 반응을 대형 출판사 교보문고(2022)의 포털사이트에서 찾아보았다. 크로스오버의 가장 큰 특징은 다층독자 즉, 아동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인과 아동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교보문고의 크로버 리뷰는 도서 구매 후 90일 이내에 10글자 이상의 리뷰와 크로버 앞의 개수로 평점 내는 것이다. 이 리뷰는 구매자만의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리뷰를 남기는 독자는 주로 성인이며, 자녀의 반응을 섞어 쓰기도 하였다.

그림책 『이상한 엄마』의 크로버 리뷰는 2016년 3월 15일에서 2022년 4월 26일까지 총 213개이다. 성인의 리뷰는 백희나 작가에 대한 신뢰를 보인 내용이 가장 많으며, 워킹맘의 애타는 마음이 공감되고, 힐링 된다는 것과 선녀님 얼굴이 너무 무섭게 그려져 있어서 아이가 어떻게 볼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 긍정적인 리뷰도 있으나, 부정적인 리뷰로는 그림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꼽았다. 성인의 리뷰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인용은 오타를 포함한 모든 글을 똑같이 적어 오류를 없앴다.

“어른 정서로 봤을 때 볼때마다 무섭긴 한데 맛벌이 엄마로 자주 겪는 상황... 공감도 되고요.”

“알사탕 정말 좋아해서 샀는데... 제가 봐도 가끔 무서워요..”

“이상한 엄마 그림이 너무 이상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데, 나도 모르게 몽클해 졌네요. 아이 책인데... 워킹맘들에게도 힐링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아이가 없는데 작가님 다큐보고 구입했습니다. 컷 하나하나에 들어간 공을 생각하면서 읽으니 더 사랑스럽고 몽클하네요. 자녀가 생기면 꼭 들려주려(?)구요~”

“비오는 날의 어둑어둑한 풍경과 뭔가 궁금하게 만드는 이야기까지... 백희나 작가여서 가능한 것

진 그림책!”

“워킹맘의 아이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공감되는 책...”

“재밌고 따뜻하고 이상한 동화책이지요”

아래 글은 아동의 반응으로 양육자가 적은 것이다. 대부분 구입한 사람이 적는 리뷰로 아동이 직접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살 여아 알사탕 잘 읽어서 이상한 엄마 책도 구입했는데 이상한 엄마 무섭다고 못읽겠다하네요

ㅋㅋ 얼굴에 흰색으로 분칠?해서 그런가봐요 ㅋ 저는 재밌게 잘 읽었어요”

“아이가 조금 무서워해요. 저희 아이에겐 백희나 작가님 책이 구름빵만 잘 맞네요. 아쉬워요.”

“재밌어요 다만 6살 남자아이는 이해력이 좀 달라네요 ㅋ”

“아이가 무척 좋아하네요”

“5세 아이가 빠져있는 책이에요 재미있네요~”

“아이가 너무 재밌어해요~”

리뷰가 대체로 성인은 일하는 엄마가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고 있으며, 아동의 긍정적인 반응은 구체적인 언급보다 ‘재미있다.’, ‘좋아한다.’로 표현하며, 부정적인 반응 대다수는 그림이 불러일으키는 정서, 즉 공포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성인은 위로를, 아동은 호불호를 표현하고 있어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2. 문학상 수상과 평판

백희나 작가의 인지도를 높인 결정적 계기는 아동문학상에서 최고의 수상금을 수여하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ALMA)을 수상한 것이다. 이 상은 2002년 스웨덴 정부가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의 저자 Astrid Lindgren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문학상이다. Astrid Lindgren은 18세에 나이 많은 상사와 불륜으로 임신해 살고 있던 마을을 떠나, 미혼모로서 성공한 작가이다(Swanson, 2007). Lindgren이 쓴 ‘삐삐 롱스타킹’은 스웨덴에서 전통 육아 및 사회 계급 구조, 법체계, 교육 체계를 공격하는 존재(Russell, 2000)로서 아이가 어른을 전복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졌다고 한다. 힘없는 여성으로서 사회 혁신 운동의 모델이 되는 Lindgren은 전통적 가족과 가치를 거부하는 인물로서 혁명의 본보기가 되었다. ALMA는 이러한 전복적 이

념이 담긴 작품에 수상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ALMA, 2021).

ALMA의 홈페이지(2021)에는 Astrid Lindgren이 풍요로운 내면의 삶에 대한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으며, 어린이 문학의 재창작자로서 작품에 대한 도덕적 확신을 대중에게 어필하고, 유머로 대화하며, 아이들과 그들의 미래를 주목하는 확고한 인본주의자(humanist)로 소개한다. 인권의 역사적 관점을 연구한 김영길(2020: 839)은 인본주의에 대한 현대인의 오류를 다음과 같이 적는다. “인권 담론의 역사에서 주목할 점은 인권의 본격적 시작이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나, 프랑스 시민혁명에 나타난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인본주의 사상이 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께서 직접 지으시고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생명권, 소유권 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이 감히 침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인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권리로 기독교 성경에서 왔으며, 초기 칼뱅주의 신학자들에게서 계몽주의 정치사상가들이 가져온 것이다.

ALMA 홈페이지(2021)가 밝힌 공식적인 제정 목표는 “모든 어린이의 훌륭한 이야기에 대한 권리를 홍보하기 위함이다. 해마다 아동 및 청소년 문학에 대한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국제적인 상이다. 스웨덴 예술 의회에서 관리한다.”이다.

아동의 권리를 보면, 국제연합(EU)은 1989년 Janusz Korezak의 어린이 권리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Korezak의 아동 권리 선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권리”로 죽음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 오늘 하루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 원래 자기 모습대로 있을 수 있는 어린이의 권리이다(우지연, 2011: 67). 이것을 포함한 다수의 인권을 위한 선언문들은 모순이 있음을 Wolterstorff(배덕만 역, 2017: 195-196)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람들이 인권과 인권이 소유하는 권리를 혼동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 소유한 권리’ 중에 하나다. UN 문서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목록을 나열한 것뿐이다.” 그는 인권이란 신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본질적 권리(Standing rights)로서 자연적인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즉, 인권의 근원은 ‘성경’에 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권리를 주셨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권은 소멸해가고 행위들만이 명명되어 인권이라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ALMA를 수상한 그림책들의 가장 큰 특징은 크로스오버이다. 2017년 수상한 독일의 Wolf Erlbruch와 2013년 수상한 아르헨티나의 Marison Misenta는 그림책에 ‘아동용’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작업했음을 밝힌다. 자녀와 부모의 갈등을 다루거나, 죽음, 성과 같은 주제들의 기괴한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창작자의 자유를 주장하며, 이것은 인본주의 사고에 따른 고민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정당화한다. 2010년에 수상한 벨기에의 Kitty Crowther와 2014년 수상한 스웨덴의 Barbro Lindgren은 양육의 불안을 주제로 다루었다. 현실에서의 양육과 다른 모습을 그림책을 통해 다루

거나 제시하곤 하는데, 이를 ALMA는 초현실주의라 한다.

Shaun Tan은 2011년 오스트레일리아 그림책 및 노블 작가로 ALMA를 수상하였다. 그는 사회문제를 주로 그림책에 담고 있다. 이민자의 생활, 소녀가 겪는 불안, 삭막한 도시에서 숨어 지내는 동물과 공존하는 인간 등, 그의 그림책의 특징은 비규정성, 다양성 등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들은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특징으로 주제에서 성인문학에 나오는 내용을 다루거나, 성인과 아동의 대립을 통해 성인의 잘못을 지적한다. ALMA(2021)는 백희나의 수상 평가에 대해 “내면의 독백, 아버지 잔소리로 이루어진 한 페이지의 텍스트, 죽은 할머니를 부르는 사탕을 예찬”한다. ALMA 역시 백희나의 영지주의 세계관을 주축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ALMA의 수상으로 평판이 좋아지는 작가들이 많지만, 그 내용에 대한 세계관은 우리가 어린이 문학에서 생각하는 가족 개념과 달랐다. 그림책의 주제 역시 도전적인 크로스오버 성격으로 성인의 문학 주제를 다루었다. 아동의 권리라고 ALMA는 주장하고 있으나, 어디에도 권리에 따른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것만으로 그림책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볼 수 없다. 또, ALMA 수상자들 대부분이 어린이 관련 학자들이 없다. 그러기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제시는 하지 못하고 결론을 맺고 있다. 작가들은 문제를 부각시키기만 할 뿐이다.

결국, 저명한 아동문학상이라도 부모, 교사가 생각하는 양식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부모, 교사는 어린이에게 발달적 도움, 도덕성, 바른 가치 기준, 사회성과 같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이로움을 주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수상 그림책은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김현경, 2021). 그러나 아동문학상이 가진 기준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아동의 발달이 성인과 같다고 보는 크로스오버(crossover) 성격, 도덕적 상대성인 상대주의, 가치 기준이 없는 허무주의(nihilism), 신학적으로 이교적인 영지주의 등을 보이고 있다.

V. 텍스트 세계관과 이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1. 텍스트 세계관

세계관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자기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문화, 미디어, 문학, 예술, 가까운 사람들, 교육 등에 의해 형성된다. 백희나의 그림책도 누군가의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에 나타난 세계관 분석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Naugle의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를 기반으로 세계관의 역사와 총체적 이해를 가지고 시

작하였다. 백희나 그림책의 세계관을 알기 위해 텍스트 자체의 세계, 텍스트 뒤의 세계, 텍스트 앞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Sire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Wilkens와 Sanford의 『은밀한 세계관』에 나타난 내용과 비교하여 뉴에이지(New age) 세계관으로 결론을 내었다.

텍스트 자체의 세계에서 판타지 장르에 나타난 인물은 선녀라는 형상을 했지만, 주술사와 같은 무속신앙과 연관된 화장과 치장을 하고 있다. 도교에서 다루는 민간신앙은 불교의 국교화로 무속신앙으로 변질되었고, 불교와 혼용되었다. 오늘날 선녀는 어느새 영지주의 성격으로 그림책에 나타났다. 성인들의 공포문학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안타고니스트이다. 백희나의 그림책 『이상한 엄마』에서 평상시 악역이던 안타고니스트가 종교 예식에 해당하는 음식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주인공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치유를 가져왔다. 결국 안타고니스트가 전복하여 주인공 역할을 하며 해결되지 않는 사회 문제를 두드러지게 하는 크로스오버 형식을 보였다. 서론에서 뉴에이지 특성을 보이는 그림책의 조건으로 동양의 종교에서 나타나는 영적 존재를 반영하고, 종교적 성향의 무속신 또는 이교적 종교 예식인 음식과 관련되거나, 심리나 스트레스 치료와 관련된다면 뉴에이지 특성을 가졌다고 전제했다. 백희나의 『이상한 엄마』는 위의 세 가지를 텍스트 자체의 세계에서 모두 충족하고 있다.

텍스트 뒤의 세계에서 만난 작가의 염세주의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는다. 정일권(2020)은 염세주의를 통해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새로운 신을 설정하는 영지주의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백희나의 교육적 배경인 CalArt는 반사회적 이념을 내세운다. 이는 기독교 전통의 창조세계를 부정하고 가족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반대하는 사회적 이념으로서, 기독교의 신앙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의 포스트모던 이념은 직, 간접적으로 작가에게 영향을 주었다.

텍스트 앞의 세계에서 문학상 수상에 따른 높은 평판을 가진 작가임을 알 수 있었다. 독자 반응으로 성인은 맞벌이 엄마로 위로받고, 공감되는 내용이었음을 적고 있다. 성인이 적은 자녀의 반응은 재미있고, 좋아하지만, 무서워한다는 내용들이 다수 있었다. 성인이 더 선호하는 크로스오버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백희나 작가는 스웨덴에서 수여하는 국제적인 아동문학상인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를 수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ALMA 수상작들이 ‘아동용’을 거부하고 성인의 주제를 다루기를 원했으며, 표현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했다. 수상작의 예술적 뛰어난 것과 파격적 주제는 그림책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수상작품은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 어린이가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백희나의 그림책 『이상한 엄마』는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해 영지주의를 보이는 뉴에이지 세계관을 가진다.

크로스오버의 커다란 영향은 그림책에 뉴에이지(New age)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뉴에이지란 매우 혼합적이고 절충적이다. 크게 오컬티즘(고대의 애니미즘, 원시종교, 이방종교)과 작게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행태(주술사, 점성술사, 명상가)이다(Sire, 김헌수 역, 2017). 뉴에이지의 기원은 고대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존재에 믿음을 강요하게 한다. 기독교를 믿지 않던 문화권에서 신봉하는 수없이 많은 신들을 다 인정한다. 동시에 재미로 여겨지는 타로카드⁴⁾를 통해 점을 치거나, 별자리 운세를 보고, 사주를 따지는 등의 헛된 믿음도 뉴에이지 안에 속한다. 동양에서 전생을 믿고, 명상을 하면 열반에 오른다는 생각으로 개인이 도를 닦아 신이 되려는 것도 뉴에이지로 볼 수 있다. 그런 오랜 행태임에도,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라는 뜻의 뉴에이지를 멋진 것으로 생각한다(Wilkens & Sanford, 안종희 역, 2014).

“세계관이란 우리 삶을 구성하는 가설과 가치들의 묶음이다”라고 Brand & Chaplin(김유리 역, 2004: 196)은 말한다. 작가 또는 시대상이 반영된 텍스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화로서 쉽게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가치로서 삼는다. 뉴에이지 세계관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복을 줄 수 있는 신앙의 대체로 범신론적 세계관의 무속신앙을 가져오는 것으로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Sire(김헌수 역, 2017: 289)는 “성경의 영들이나 다른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에 대해 경고한다. 가장 오래되고 분명한 경고는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스라엘이 거저 종교와 무속 행위로 가득 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졌다.”라고 하였다.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다른 신의 힘을 빌려 운명을 움직이려는 자는 신성모독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Sire, 김헌수 역, 2017).

2. 뉴에이지를 보이는 판타지 텍스트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크로스오버 그림책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이 대상임을 명시하고, ‘아동용’이라는 말을 삭제한다. 가장 큰 특성은 불확실성, 혼합성, 아이러니 형식과 성인용으로만 간주되는 심오한 논란의 내용, 예를 들면, 성, 죽음, 귀신, 자살의 내용을 다루는 주제를 가진다(Beckett, 2002). 시각적으로 독특한 예술을 시도하여 이러한 형식을 부각하고, 논란의 내용은 주로 판타지 장르로 다룬다. 판타지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쉽게 처리하는 도구와 같다. 뉴에이지 세계관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장르도 판타지이다.

Todorov는 환상문학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가로서 호평을 받았다. 그는 러시아 형식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Freud의 정신분석과 연계하여 해석했다. 결국 논지에서 기독교 관점은 배제되었고,

4) 타로(Tarot)카드들은 다양한 그림이 그려진 78매의 카드를 뽑아가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일종의 점이다. 타로카드의 기원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막연히 옛날 중국, 인도, 아라비아 등 여러 지역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타로 카드는 흔히 정통 또는 클래식으로 불리는 ‘마르세유 타로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성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현재 그 종류만도 1,000여종이 넘는다(시사상식사전, 2022).

환상이 기이함으로 혼용되는 것에 일조했다(Todorov, 2013). 판타지를 장르 분석이 아닌 사회 분석으로 바라본 Jackson은 억압되고 은폐된 욕망의 표출로서 현재의 질서를 전복(subversion)시키는 문학이라고 하였다. 그는 18세기 이전에는 악이 매우 분명했으나, 고딕소설(Gothic Fiction)⁵⁾이 등장한 18세기 이후로 악의 형상이 평범해졌다고 한다. 19세기에는 악이 인간의 내면세계로, 20세기에서 악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Jackson,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2001). 뉴에이지 역시 이런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 사상의 하나로서 나타난다. 악으로 표상되던 영지주의가 마치 판타지의 정설인 듯 어린이 그림책에 나타나서 선과 악의 개념을 상대화 시킨다.

Tolkien은 판타지, 요정 이야기, 여러 ‘로맨스’ 문학이 기본적으로 어린이가 아니라 성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Lewis도 이에 동의했다(Duriez, 홍종락 역, 2005). 그러나 Tolkien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로 가정하고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여 점점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이는 훗날 『반지의 제왕』 속의 중간지역을 설계하는 근본이 되며, 아이들에게 적합한 판타지가 탄생한다(Pearce, 김근주·이봉진 역, 2001). Tolkien은 분리된 공간인 환상을 2차 세계로 설정하였고, 현실의 1차 세계와 다른 차원으로 보았다. 환상 세계는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마법이 일어나는 세계와 현실이 완벽히 분리되는 곳이다. 어린이 문학의 분리된 환상 구조에서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아동 심리학자인 Bettelheim도 『옛이야기의 매력』에서 아동을 위한 문학구조로 Tolkien과 같은 구조를 언급한다. “이야기는 단순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환상적인 세계 속으로 진입해 들어간다. 어린이를 경이로운 세계로 여행하게 한 후 마지막에는 가장 안도감을 주는 방법으로 어린이를 현실 세계에 데려다 놓는다.”(Bettelheim, 김오순·주옥 역, 2019: 105). 그는 아동 심리학자로서 아이들의 문학 경험이 주는 불안과 안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있었다.

Tolkien과 Lewis는 문학에서 선과 악의 뜻은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Pearce, 김근주·이봉진 역, 2001: 112). 악이 선에 기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를 떠올리면 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악은 선이 동요하지 않고 신앙의 깊이를 가질 때 침범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다. 오늘날 그림책은 선과 악에 대해 불분명한 경계를 보인다. 아무도 잘 못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보면 누구도 옳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이다. 이러한 잣대는 내적인 가치를 키우지 못한다.

Tolkien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손이기에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눈부시고 영원한 진실에서 떨어져 나온 단편임을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역경과 고난, 악과 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에 의해 악을 이겨내는 믿음의 주인공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이러한 인물을 통해 선

5) 고딕소설(Gothic Fiction)은 중세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공포와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유럽의 낭만주의 소설 양식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고딕소설들은 잔인하고 기괴한 이야기를 통해 신비한 느낌과 소름 끼치는 공포감을 유발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문학비평용어사전, 2022).

파국의 종결을 갖는 형식 또한 기독교의 믿음을 굳게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 담긴다고 한다. 선파국(eucatastrophe)이란, 분명히 슬픈 결말의 이야기에서 갑작스럽게 행복한 반전이 이루어져 깊이 감명을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인간은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하여 악하게 된 것이다. 악을 악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존재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은 곧 구속으로서 기독교의 신앙 안에 머무는 것으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삶에 대한 허락을 얻는 자격이 된다. Tolkien은 문학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며 선파국이 어린이 문학의 가장 큰 기능이며, 구속을 통한 회복의 기쁨은 뛰어나고 완전한 좋은 동화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Pearce, 김근주·이봉진 역, 2001). Mouw(박일귀 역, 2021: 171) 역시 “Tolkien이 말했듯이, 좋은 어린이 문학은 이야기 내내 긴장감을 늦추기 않고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하면서 안도감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의 주장을 지지했다.

뉴에이지 세계관을 보이는 그림책은 허무한 세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불안과 공포 안에서 머물다 어쩌다 찾아온 이상한 존재의 행운에 잠시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문제해결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이 문제라는 의식만을 남긴다. 타락한 인간이 만든 세상, 그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백희나의 『이상한 엄마』 그림책도 불안정한 현실을 반영할 뿐이다.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이 빠진 그림책은 타락한 세상 속의 허무한 삶을 보여줄 뿐이다.

현은자(2017)는 그림책에서 은혜의 영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림책에 함축된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일부라고 설명한다. 즉, 은혜를 아는 사람, 소수의 사람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에 대해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영적 안녕을 제공하는 것”(현은자, 2017: 36)임을 알린다. 어린이에게 삶에 대해 안녕을 알려주는 좋은 그림책이란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마음을 키워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판타지 장르가 기독교의 성격을 버리게 됨을 Pearce(김근주·이봉진 역, 2001)는 강조한다. 그림책에 나타나는 뉴에이지는 판타지를 서투르게 모방한 것이며, 현실에서 도망가는 위로일 뿐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좋은 가치를 모르는 작가들은 악한 모습이 주는 기괴함을 다룬다. 이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다. 즉, Tolkien이 작품 속에서 생명과 의미를 부여한 ‘영혼’은 종교적인 차원이며, 종교적으로 무지한 작가들은 전체적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게 된다.

VI. 결론

본 연구는 백희나 작가의 『이상한 엄마』 그림책에 담긴 세계관을 Vanhoozer(2009)가 『문화신학』에서 제시한 방법론인 ‘텍스트 자체의 세계’, ‘텍스트 앞의 세계’, ‘텍스트 뒤의 세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후 도출된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해 보았다. 텍스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 자체의 세계로 표지와 면지는 서로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앞, 뒤 면지의 이야기는 시작과 끝을 알리는 내용으로 하나의 단편 서사가 종결됨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앞, 뒤표지는 엄마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표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Serafini, 2012; 한아름, 2016)를 참고한다면, 『이상한 선녀』의 앞표지에 나타난 초현실 존재가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텍스트 자체의 세계로 문학 구조인 주인공, 주제, 플롯, 배경은 영지주의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문학에서 주인공인 프로타гон리스트(protagonist)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책 『이상한 엄마』에서는 안타고니스트(antagonist)의 원형이며 공포문학의 등장인물인 ‘무서운 선녀’가 프로타고니스트 역할로서, 기존의 질서를 전복시키고 있다. 그림책에서 지면을 차지하며, 현대사회에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안타고니스트가 전복의 역할을 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그림책의 주제가 되었다. 즉, 현대는 일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아픈 자녀를 돌보아줄 기관도, 사람도, 도움을 받을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었다. 플롯(Plot)은 나약한 소년과 외로운 엄마는 귀신과 유사한 분장을 한 선녀에게 의지하여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것으로 영지주의를 보이며, 이상한 선녀가 떠난 뒤의 허무함을 내포하는 허무주의를 보였다. 배경은 어린이 문학에서 전형적인 판타지의 2차 세계를 현실인 1차 세계와 분리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었다. 이는 성인의 공포문학에 나타나는 배경으로 영지주의의 절정을 보인다.

텍스트의 뒤의 세계를 보면 작가가 처음 만든 그림책 『구름빵』을 출판사와 매절 계약을 하여, 그림책의 흥행에 비해 수익은 적었다. 저작권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백희나 작가는 인터뷰에서 자신은 염세주의 작가라고 하였으며, 어른을 위로하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은 크로스오버 현상을 가져왔으며 사회문제를 다루게 된다. 백희나 작가는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을 드러내는 미국의 Disney가 만든 대학인 캘리포니아 예술대학(CarArts)에서 애니메이션을 배웠다. CarArts 홈페이지(2021)에 “역사적으로 Disney의 유토피아적 개념을 가진 반문화적 기반의 교육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기반의 영향으로 그녀의 다른 작품에도 영지주의

가 드러난다. 할머니 영혼을 부르는 『알사탕』, 개의 영혼이 이야기하는 『나는 개다』, 『이상한 손님』에서도 하늘에서 온 도깨비인 천알록, 천달록과 달갈귀신이 등장한다. 작가는 확실히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을 그림책에 반영하고 있다.

텍스트의 앞의 세계를 보면 독자반응으로 성인은 일하는 워킹맘으로서 위로를 받는다거나 공감한다는 반응이며, 성인이 보는 자녀의 반응으로 재밌다, 좋다는 반면 무섭다가 다수 있었다. 아이들보다 성인이 더 공감하는 크로스오버 성격이 독자 반응에서 나타난다. 백희나 작가의 인지도가 높아진 계기는 스웨덴 정부가 수여하는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를 받은 이후이다. 국제적으로 최고의 상금을 주는 아동문학상으로 알려진 ALMA는 그 명성이 높음에도 연구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보가 없다. ALMA 수상 작가들을 살펴보면, 그림책이 아동용이길 거부하는 작가들이 많다. 그래야만 자신의 세계를 담을 수 있고, 솔직한 인간의 참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작가의 주제는 아동과 성인의 대립, 불합리한 성인의 모습, 죽음과 자살, 외톨이 등과 같은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결국, 백희나 작가 역시 ALMA의 수상기준에 비추어 크로스오버 성격을 가진 작품이며,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anhoozer(2009)의 『문화신학』의 방법론에 따라 백희나 작가의 『이상한 엄마』 그림책 텍스트의 세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Sire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Wilkens와 Sanford의 『은밀한 세계관』에 나타난 내용과 비교하여 뉴에이지(New age) 세계관으로 결론을 내었다. 뉴에이지란 크게 고대의 애니미즘, 원시종교, 이방종교를 말하는 오컬티즘과 작계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행태인 주술사, 점성술사, 명상가 등을 말한다(Sire, 김현수 역, 2017). 고대부터 이어진 뉴에이지를 사람들은 새로운 것, 멋진 것이라 착각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회복을 위해 그림책이 성경의 창조-타락-구속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어린이 문학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희생과 부활의 이야기인 선한 결말이 가져오는 기쁨이라는 Tolkien의 주장이 있다. 실제로 Tolkien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상상이 편지를 쓰면서 판타지 속의 인물과 플롯, 배경 및 주제까지 기독교 세계관을 내재한 작품을 설계하고, 문학에 이루어낸다. 그러나 뉴에이지 그림책은 창조-타락에 머물러 허무한 세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책에도 기독교 세계관을 담을 수 있다. 현은자(2017)는 그림책에 담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은혜’는 누구에게나 닿아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좋은 그림책이란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다. 본 연구와 같이 그림책의 세계관을 분석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회복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근주·이봉진 역 (2001) **톨킨 - 인간과 신화**. Pearce, J. (1998) TOLKIEN: MAN AND MYTH. 서울: (주) 자음과모음.
- [Kim, K. J. & Lee, B. J. (2001). Tolkien-Man and Myth. Seoul: JAEUM & MOEUM. Trans. Pearce, J. (1998). *TOLKIEN: MAN AND MYTH*. New York: HarperCollins.]
- 김영길 (2020). 인권의 담론과 성경의 관점에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신앙과 학문**, 37(03), 834-847.
- [Kim, Y. K. (2020). The issue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Bible and the discourse of human rights. *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 37(03), 834-847.]
- 김오순·주옥 역 (2019). **옛이야기의 매력1**, Bettelheim, B. (1975). The Uses of Enchantment. 서울: IVP.
- [Kim, O. S. & Joo O. (2019). The Charm of an old story 1. Seoul: IVP. Trans. Bettelheim, B. (1975). *The Uses of Enchantment*. New York City: Alfred A Knopf.]
- 김유리 역 (2004). **예술과 영혼**. Brand, H. & Chapline, A. (2001). Art and soul 서울: IVP.
- [Kim, U. R. (2004). Art and Soul. Seoul: IVP. Trans. Brand, H. & Chapline, A. (2001). *Art and soul: Signposts for Christians in the Arts Westmont*, Illinois; IVP.]
- 김정준·신원애 (2016). 그림책에 나타난 파라텍스트의 의미 분석. **한국육아지원연구**, 11(3), 179-202.
- [Kim, J. J. & Sin, W. A. (2016). The meanings of the 'para-texts' in children's picture books.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1(3), 179-202.]
- 김한중·이성호·문여경·송인영·이희근·최혜경 (2015) **한국사 사전2: 역사 사건**. 문화와 사상. 책과함께어린이.
- [Kim, H. J., Lee, S. H., Moon, Y. K., Song, I. Y., Lee, H. K. & Choi, H. K. (2015). *Korea History Dictionary2: History Event*. Cultural and Idea. Seoul: Children with Books.]
- 김현수 역 (2017).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Sire, J. W. (2004). The Universe Next Door 서울: IVP
- [Kim, H. S. (2017). Christian Worldview and Modern Thought. Seoul: IVP. Trans. Sire, J. W. (2004). *The Universe Next Door*. USA: InterVarsity Press.]
- 김현경 (2021). 문화해석방법론으로 그림책 세계관 읽기-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을 중심으로. **한국독서아카고라연구**. 3(0), 229-258.
- [Kim H. K. (2021). Reading Worldview in Picture Books with Cultural Interpretation Methodology-Focusing on Anthony Browne's Piggybook. *Acagora Reading Reserch*, 3(0), 229-258.]

- 남지현 (2016). 백희나 판타지 그림책의 환상성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9), 327-356.
- [Nam, J. H. (2016). A Study on Fantasy of Beak Heena's Picturebooks. *The Korea Association of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 (19), 327-356.]
- 류훈 (2019). 현대영화의 프로타고니스트 활용방법. *영상기술연구*, -(31), 23-42.
- [Ryoo, H. (2019). How to Use Characters as 'Protagonists' in Modern Films. *Moving Image Technology Association*, -(31), 23-42.]
- 박세혁 역 (2018).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Naugle, K. David(2002) *WORLDVIEW*. 서울: CUP
- [Park, S. H. (2018). *Worldview, The History of a concept*. Seoul: CUP. Trans. Naugle, K. D. (2002). *WORLDVIEW*.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
- 박일귀 역 (2021). **왜곡된 진리**. Mouw, J. R. (1989). *Distorted Truth*. 서울: CUP.
- [Park, I. G. (2021). *Distorted Truth*. Seoul: CUP. Trans. Mouw, J. R. (1989). *Distorted Truth*. New York: HaperCollins.]
- 배덕만 역 (2017). **하나님의 정의**. Wolterstorff, N. (2013). *Journey toward Justice*. 서울: 복있는사람.
- [Bea, D. M. (2017). *The Justice of God*. Seoul: BlessedPeople. Trans. Wolterstorff, N. (2013). *Journey toward Justice*. Michigan: Baker Academic.]
-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2001). **환상성: 전복의 문학**. Jackson, R. (1981). *Fantasy The Literature of Subversion*. 서울: 문학동네.
- [Sogang Women's Literature Research Association (2001). *Fantasy: The Literature of Subversion*. Seoul: Munhakhdongne. Trans. Jackson, R. (1981). *Fantasy The Literature of Subversion*. London: Routledge.]
- 신국원 역 (2016). **행동하는 예술**. Wolterstorff, N. (1980). *Art in Action* 서울: IVP.
- [Shin, K. W. (2016). *Art in Action* Seoul: IVP. Trans. Wolterstorff, N. (1980). *Art in Action*. Michigan: Eerdmans.]
- 송은정 역 (2017). **C. S. 루이스의 순전한 교육**. Pike, A. M. (2013). *Mere Education*. 서울: IVP.
- [Song, E. J. (2017). *Mere Education by C. S. Lewis*. Seoul: IVP. Trans. Pike, A. M. (2013). *Mere Education*. Cambridge: The Lutterworth Press.]
- 안중희 역 (2014). **은밀한 세계관**. Wilkens, S. & Senford, L. M. (2009). *Hidden Worldviews*. 서울: IVP.
- [Ahn, J. H. (2014). *Hidden Worldviews*. Seoul: IVP. Wilkens, S & Senford, L. M. (2009). *Hidden Worldviews*. Illinois: IVP.]
- 엄다혜 (2021).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안타고니스트 연구: '로키'캐릭터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Eom, D. H. (2021). *A Study on <Marvel Cinematic Universe> Antagonist Analysis -Focusing on Loki character*.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igital Image and Contents Department of Culture Contents.]
- 우지연 (2011). **어린이 인권에 관한 기독교교육학적 성찰**.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Woo, J. Y. (2011). *Christian pedagogical reflection on children's rights*. Masters dissert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 윤석인 역 (2009). **문화신학**. Vanhoozer, K., Anderson, C. A. & Slesman, M. J. (2007). *Everyday Theology*. 서울: 부흥과 개혁사.
- [Yoon, S. I. (2009). *Cultural Theology*. Seoul: Revival and Reform History. Vanhoozer, K., Anderson, C. A. & Slesman, M. J. (2007). *Everyday Theology*. Michigan: BakerBooks.]
- 이영경·김은주 (2019). 백희나 그림책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탐색. **생태유아교육연구**, 18(2), 29-55.
- [Lee, Y. K. & Kim, E. J. (2019). Exploring the meaning of family in Baek Hee-na's picture book.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8(2), 29-55.]
- 임대희 (2020) 칸트의 근본악 개념으로 본 영화 속 악인 캐릭터 스토리텔링 복합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8(3), 289-304.
- [Lim, D. H. (2020). A Complex Study on Storytelling of the Character of The Villain in Film through Kant's Fundamental Evil Cogitation.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38(3) 289-304.]
- 임재영 (1994). 중국 고대의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18(1), 463-485.
- [Lim, J. Y. (1994). A Study on the Cosmetic Culture of Ancient China. *A collection of papers from Hansung University*, 18(1), 463-485.]
- 임정진 (2019). 그림책 속 공중목욕탕의 비밀. **아동문학평론**, 44(1), 199-206.
- [Lim, J. J. (2019). Secrets of the public bath in the Picture Book. *Criticism of Korea Children's Literature*, 44(1), 199-206.]
- 임철규 역 (2000). **비평의 해부**. Frye, N. (1967). *Anatomy of Criticism* 파주: 한길사.
- [Lim, C. K. (2000). *Anatomy of Criticism*. Paju: Hangilsa. Trans. Frye, N. (1967).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정일권 (2020). **문화막시즘의 황혼**. 서울: (사)기독교서문서선교회
- [Chung, I. K. (2020). *Twilight of Cultural Marxism*, Seoul: Christian Literature Center.]
- 최애영 역 (2013). **츠베탕 토도로프 환상문학 서설**. Todorov T. (1976). *Introduction à la littérature fantastique*. 서울: 일월서각
- [Choi, A. Y. (2013). *The Fantastic*. Seoul: Ilwolbooks. Trans. Todorov T. (1976). *Introduction à la*

- littérature fantastique*. Paris: Editions du Seuil.]
- 최혜림 (2012) **백희나 그림동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Choi, H. R. (2012) *A Study on the Children's Stories with Illustrations by Heena Baek*. Masters dissertation. Myungji University. Seoul. Korea.]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일산: 국학자료원.
- [Korean Literature Critics' Association (2006). *Dictionary of Literary and Critical Terms*. Ilson: KooHak.]
- 한아름 (2016). **해외 아동문학상 수상 한국 그림책의 페리텍스트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Han, A. R. (2016). *A Study on Peritext of Foreign Children's Literature Award-winning Korean Created Picturebooks*. Masters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현은자·김주아 (2019). Vanhoozer의 신학적 문화해석에 기초한 자바카 스텝토의 빛나는 아이(2016)해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2), 41-73.
- [Hyun, E. J. & Kim, J. A. (2019). Interpretation of Javaka Steptoe's <Radiant Child>(2016) Based on Vanhoozers Theological Cultural Hermeneutic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20(2), 41-73.]
- 현은자·김주아·국경아 (2018). 존 클라센의 모자 삼부작에 대한 세계관적 접근.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9(4), 199-225.
- [Hyun, E. J., Kim, J. A. & Kook, K. A. (2018). Worldview Approach to John Klassen's Picturebooks <Hats Trilogy>.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9(4), 199-225.]
- 현은자·이지운 (2022). 김경수작가의 『고민해결사 펭귄선생님』평론.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3(1), 1-17.
- [Hyun, E. J. & Lee, J. U. (2022). Criticism on Kang Gyeong-Soo's 『Troubleshooter Dr. Penguin』.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23(1), 1-17.]
- 현은자 (2017). 그림책 해석의 영성적 접근: 은혜 개념을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3), 21-42.
- [Hyun, E. J. (2017). Spiritual Approach to Picture Book Interpretation: Focusing on the concept of Grace.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18(3), 21-42.]
- 홍종락 역 (2005). **루이스와 톨킨 우정의 선물**. Duriez, C. (2003). Lewis and Tolkien The Gift of Friendship. 서울:홍성사
- [Hong, J. R (2005). Lewis and Tolkien The Gift of Friendship. Seoul: Hongsungsa. Trans. Duriez, C. (2003). *Tolkien and C. S. Lewis*. New Jersey; HiddenSpring.]
- 교보문고 포털사이트. 개설일자 미상. “이상한 엄마 Klover리뷰”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

code=9791158360214&orderClick=LAG&Kc=(검색일 2022.04.26.)

[“Strange Mom Klover Review”, Kyobobook Portal Site(Unknown), Retrieved from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58360214&orderClick=LAG&Kc=> (2021.05.01.)]

대학내일 2016.04.08.일자. “백희나:염세주의자의 동화” <https://univ20.com/36821> (검색일 2021.06.08.)

[“Baek Hee-na: A Tale of the Pessimistic”, Tomorrow at University(2016.04.08.). Retrieved from <https://univ20.com/36821> (2021.06.08.)]

북라이브 2020.10.28.일자. “[작가탈탈] 어린이만? 아니 어른도! 위로하는 그림책 작가 백희나” <http://www.booklive.kr/4476> (검색일 2021.04.26.)

[“Baek Hee-na, picture book writer comforting adults!”, Book Live(2020.10.28.). Retrieved from <http://www.booklive.kr/4476> (2021.04.26.)]

ALMA 홈페이지 2002년 “수상, 수상자들” <https://alma.se/en/> (검색일 2021.06.01.)

[“The Award, The Laureates”,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Homepage (2002). Retrieved from <https://alma.se/en/> (2021.06.01.)]

월간문화재사랑 2008.02.01.일자 “도가와 만나다 - 우리나라의 도교 흔적을 찾아서”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5587&bbsId=BBSMSTR_1008(검색일 2021.06.07.)

[“Meet Doga-Find traces of Taoism in our country.”, Monthly Cultural Heritage Love(2008.02.01) Retrieved from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5587&bbsId=BBSMSTR_1008 (2021.06.07.)]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 홈페이지. 개설일자미상. “칼아츠에 대하여 - 역사” <https://calarts.edu/about/institute/history> (검색일 2021.06.08.)

[“CalArts About- History”,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CalArts Homepage (Unknown) Retrieved from <https://calarts.edu/about/institute/history> (2021.06.08.)]

한겨레. 2020.04.18.일자. “구름빵’ 작가는 얼마나 아빠가 없는 친구들에게 미안했대”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37578.html (검색일 2021.06.07.)

[“The writer ‘Cloud Bread’ said she was sorry for her friends who didn’t have a mother or father.” The Hankyoreh(2020.04.18.),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37578.html (2021.06.07.)]

한국민속대백과사전. 2016.12.28.일자. “육황상제”

-
- <https://folkency.nfm.go.kr/kr/mainSearch/%EC%98%A5%ED%99%A9%EC%83%81%EC%A0%9C> (검색일 2021.06.07.)
- ["the Great Jade Emperor" Encyclopedia of Korean Folk Culture(2016.12.28.) Retried from <https://folkency.nfm.go.kr/kr/mainSearch/%EC%98%A5%ED%99%A9%EC%83%81%EC%A0%9C> (2021.06.07.)]
- NEWS1 2014.08.28.일자 "4400억 대작에 저작권료 고작 1850만원.. '구름빵' 비극 없앤다"
<https://www.news1.kr/articles/?1834186> (검색일 2021.07.06.)
- ["440 billion, just 18.5 million won for copyright. "Cloud bread." They are going to get rid of the tragedy." NEWS1 news(2014.08.28.). Retried from <https://www.news1.kr/articles/?1834186> (2021.07.06.)]
- Beckett S. L. (2012). *Crossover Literature: A genre for all ages*. New York: Routledge.
- Judith, R. (1997). Breaking the Age Barrier. *Children's literature*. 244(37), 28-31.
- Meibauer B. K. (2017). *From baby books to picturebooks for adults: European picturebooks in the new millennium*. World & Image.
- Serafini, F. (2012). Taking Full Advantage of Children's Literature. *The Reading Teacher*, 65(7), 457-459.
- Stott, J. C. (1977). Midsummer Night's Dreams: Fantasy and Self-Realization in Children's Fiction. *The Lion and The Unicorn*, 1(2), 25-39.
- Swanson, S. M. (2007). Astrid Lindgren's Swedish Legacy, *The Horn Book Magazine*. November/December. 637-643.

뉴에이지 그림책의 기독교 세계관 조명

An Analytic Study of New Age Picturebook within Christian Worldview

이수형 (성균관대학교)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초록논문

어린이 문학에 끼친 크로스오버 현상으로 성인만의 공포 문학이 그림책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림책에 나타난 크로스오버 현상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 분석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이상한 엄마』를 대상으로 Vanhoozer(2009)의 문화해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세계관을 분석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텍스트 자체의 세계로 표지를 통해 가정의 문제가 지속됨을 나타냈다. 주인공은 프로타гон리스트를 전복(subversion)한 안타고니스트로 사회에 문제가 많음을 드러내고자 악인이 선인을 돕는다. 결과적으로 사회문제를 부각시키는 허무주의를 가졌다.

둘째, 텍스트 뒤의 세계로 백희나 작가는 저작권 소송을 패소하며, 염세주의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다. 작가 본인도 이 시기의 감정이 작품에 반영되어 어둠이 드러남을 고백했다. 작가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지향하는 CalArts에서 공부했다. 우수한 영상미를 보이지만, 그 성격은 오컬티즘이 반영된 영지주의 그림책을 다수 만들었다.

셋째, 텍스트 앞의 세계로 성인은 위로를, 아동은 재미와 무서움을 표현하며 각 독자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백희나 작가는 ALMA를 수상하고 인지도를 높였다. ALMA의 수상 작가들은 ‘아동용’을 벗어나 자유로이 작업함을 강조하며, 크로스오버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반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텍스트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반영하며 허무한 세상을 대체할 뉴에이지(newage) 세계관을 담고 있다. 이는 창조, 타락에 멈추어선 반영이며 구속으로 회복을 제시하는 그림책의 기독교 세계관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림책을 포함한 어린이 문학에 기독교 세계관을 담을 수 있음을 Tolkien의 판타지 이론으로 예시하였다. 현은자(2017)는 그림책에 담긴 은혜는 누구에게나 닿아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좋은 그림책이란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다.

현재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따라가는 그림책 문화 형성기에 있지만 이를 세계관 분석으로 파악하고,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회계하고 다시 회복하는 문학인, 비평인,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주제어: 기독교 세계관, 뉴에이지 그림책, 문화 해석학.